

숨이莊嚴하였으리라고想像된다.

거북선의 歷史的 考察

國防史學會 副會長 金 龍 國

「거북선」즉 龜船에 대한 記事가 文獻上에 처음 보이는 것은 太宗實錄에서부터이다. 즉 太宗實錄 13년(서기 1413) 2월(甲寅)條를 보면, 王이 臨津江 나루를 지나다가 龜船과 倭船이 서로 싸우는 연습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記錄은 文面 그대로 거북선이 倭船 즉 日本式 兵船과 戰鬪연습함을 말한 것이요, 거북선의 創製를 의미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거북선은 지금부터 560餘年전인 太宗 13년 以前에 이미 建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거북선은 과연 언제 建造된 것일까? 또한 누구에 의하여 創製된 것일까?

지금까지 남아 전하는, 아니 發見된 記錄으로는 이 거북선의 創製年月日이라든가 發明者를 斷言할 수는 없다. 다만, 太宗朝의 이러한 거북선 關係記錄과 關聯하여 생각할 때, 거북선은 數百隻의 漕運船을 建造하고 또 兵船도 많이 지었던 太宗 2年, 또는 降倭人 平道全을 시켜 倭式兵船을 建造하기도 하던 太宗 12年頃에 林整 같은 艦艇建造家에 의하여 建造되지 않았던가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좀 더 올라가서는 「倭寇」의 患이 가장 甚하던 高麗 末期, 그 중에도 禑王朝(1375~1388)에 있어서, 崔俊宣에 의하여 火藥製造 및 그것을 이용하는 大小銃砲를 製造하여 艦艇에서 사용하게 될 무렵, 艦艇 建造를 맡아하던 崔瑩, 鄭地 등 將軍들에 의하여 거북선도 建造되지 않았던가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거북선의 堅固한 構造가 艦砲 使用, 對倭寇 戰鬪에 가장 適合하게 되었던 것으로 마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거북선의 完成은 어느 한 時期, 또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즉 우리 科學界의 자랑이요, 海軍의 無敵戰艦이던 거북선은 平地突出格의 急造發明이 아니요, 일찍부터 발달하여 온 우리의 艦艇構造를 集約하여 敵船團을 衝突 擊破하기에 가장 적합하게 考案 建造한 特殊戰艦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三面이 바다로 둘러진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海上活動, 海上防備를 위한 艦艇이 발달하였으며, 高麗朝

初期에 있어서도 大型 戰船의 「樓船」이라는 特殊戰船의 「戈船」이 海上에서 威를 떨쳤으며, 末期에 와서는 「鉦船」의 활동이 보이기도 한다. 또 近世朝鮮 前期에 있어서도 「鎌船」, 「板屋船」 등의 새 艦艇名稱이 보이는데 거북선은 곧 이러한 各種 艦艇들의 長點을 集大成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名稱에 있어서도 거북선은 다른 艦艇들보다 좀 더 높은 次元에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즉 「樓」, 「戈」, 「鉦」 또는 「板屋」 같은 단순한 그 構造形態의 指稱을 超越하여 向來十長生 중의 하나요, 또 靈物이며 그 背甲은 “堅固不破”로 유명한 「거북」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 「거북선」 즉 「龜船」의 名稱 緣起에 대하여 向來로 「形如伏龜」, 「狀如伏龜」 즉 형상이 거북이 었던 것 같은 데서 온 것이라 하고, 이러한 指稱에 따라서, 거북선의 모양을 마치 거북 모양 그대로 동글게 그리기도 하였지만, 실은 그 名稱의 緣起는 屋蓋 즉 배의 上部를 덮은 윗 평경이 거북의 등가죽처럼 堅固不破하게 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또 거북처럼 長生不死하는 靈物을 象徵하는 데서 온 것이요, 반드시 거북 모양의 圓形을 의미함은 아니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龜船圖案說」 등에 있는 거북선의 構造說明이 잘 말하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전조 발달된 거북선은 太宗朝 前後에 있어서도 이미 龜船之法 衝突衆敵 而敵不能害可謂決勝之良策……이라고 하여, 그 構造와 性能이 높이 評價되었음을 볼 수 있지만 「壬辰倭亂」直前에 李忠武公에 의하여 建造되었던 거북선은 다시 더 改良發達되어, 敵船數百隻이 있는 곳이라도 들어가서 砲를 쏠 수 있는 性能을 갖추었으며, 또 실지에 있어서도 突擊將이 타고 先鋒으로 나가는 거북선은 언제나 敵船團 中으로 突入해서 天, 地, 玄, 黃字의 各樣 銃砲를 發射하여, 敵의 主陣을 粉碎하고 戰爭을 勝利로 이끌었던 것이다.

그리고 「壬辰倭亂」후에도 거북선의 實戰效果는 높이 評價되어 三南 各 水營에는 거북선을 常時 配置하였으며, 또 構造에 있어서도 砲穴의 增加, 龍頭, 龜尾 및 龜背의 改善 등 實戰에 適應하게 改善發展을 거듭하였던 것이다.